

감보로病이란?

원 송 대 (배성미생물연구소상무)

3주령 내지 4주령의 닭에서 수양성 설사를 하며 항문이 뚫리고 털들이 거칠어지면서 닭들이 죽시둠에 걸렸을 때처럼 힘없이 서있거나 갑자기 생기를 잃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외부증상이 있다고 감보로병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감보로병의 주 외부 증상입니다.

감보로 병은 그 잠복기가 2~3일밖에 안되어 병의 경과도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 병을 포착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심급성형은 너무나 갑자기 발병하여 무슨 병으로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죽는 닭도 있으므로 감보로 병을 진단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간혹 이 병에 걸릴 때 보면 구루병과 비슷한 증세로 다리와 날개를 쭉 뻗으면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렉의 피해인지 감보로의 피해인지 알지 못하는 채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이 감보로병이 발병했느냐에 대한 확증은 없으나 가장 가까운 일본의 피해로 보나 도입계가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감보로 병이 발생할 가능성 이 많으므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예방을 위해 발생되면 조속히 대처하기 위해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하여 모든 상용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원래 이 병의 이름은 전염성 훼브리셔스 낭염 (Infectious Bursal Disease) 으로 1962년 미국 멜라웨이주 감보로지역에서 처음 규명되어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감보로 (Gumborodisease) 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체는 전염성 기판지염의 변이 바이러스 (I. B. V.) 임이 밝혀졌으며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소독약과 열에 대해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일반계사 내에 발병하면 장기 상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병명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 병이 발병되는 장소가 항문 내에 부착되어 있는 훼브리셔스 낭 (Bursa of Fabricius)

질병.....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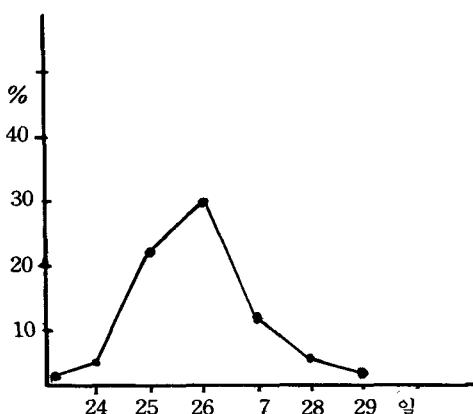
즉, 이 병의 감염 후 4 일내 훼브리셔스 낭이 정상보다 배로 증장되고 감염후 5 일 이 지나면 위축되어 감염 후 8 ~12일 후 면 정상 닮은 훼브리셔스낭 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문에 붙어 있는 훼브리셔스낭은 총배 설강 내 부착된 부속물로서 원래 크림색의 완두콩만한 크기로 면역(감마 그로빈)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약 10주령 후부 터 퇴화하여 4 개월령 정도가 되면 혼적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면역학에서 도 B—세포를 형성하는 낭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훼브리셔스낭 이외에 근육내 출혈이 보인다든가 신장이 종대되며 뇨산침착증의 병변이 보이거나 비장의 종대, 또는 선위의 출혈점 등을 종합해서 임상진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증세는 다른 병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발병율은 80% 이상이 되나 폐사율은 5 ~10% 정도가 되며 폐사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폐사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1. IBD에 있어서 전형적인 폐사곡선



수의사를 위해 훼브리셔스낭의 병변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파세포의 괴사와 변화
- 임파조직의 파괴
- 염증반응
- 망상내피세포의 비후와 수종

이상과 같은 것이 병의 경과에 따라 훼브리셔스낭 속의 조직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의 진단이 어려운 점은

- ①이 병은 갑자기 발생하여 증상이 빨리 소실되므로 발병시기에 포착하여야 한다는 점과
- ②모체이행항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체마다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③이 병의 특발부위가 훼브리셔스 낭인데 반드시 감보로병에서만 이 낭의 종대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안양 연구소 계역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병의 예방을 위해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일일령추에 접종하여 양축 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체이행항체라든지 초생추의 면역형성 능력의 부족한 점으로 보아 3주령 전후에 접종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이 병은 마렉 병처럼 어렸을 때 감염되기 쉬우므로 부화장에서 일일령추에 접종하는 것입니다.

병아리에 갑자기 발증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텔이 역립하여 침울하게 보이는 계군에서 추백리처럼 항문이 지저분하고 갑자기 발병하였다가 2 ~ 3 일 후에 수그러지는 증세가 보이는 닦이 있으면 안양가축위생 연구소 계역파나 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사 결과 감보로 병으로 판명될 때는 그 계군에 대한 보상을 필자가 해드립니다.